

신천지예수교회 폭발적 성장... 성경 중심 '참 신앙'의 결과



▲ 신천지예수교회 무료신학원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6개월 간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수강생들이 성경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교리비교 후 말씀 인정하고 몰려온 성도 수 3만 명 넘어서 시온기독교선교센터 광주·전남지역, 올해 11~12월만 3천여 명 몰려

신천지예수교 증장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탁월한 성경말씀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알려지면서 폭발적 성장을 이루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8일 서울·경기지역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이하 선교센터)를 통해 성경공부를 마치고 입교한 6천여 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유럽,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 1700여 명과 광주, 전남·북, 대구, 부산, 경남·북 등 국내에서 1만여 명이 입교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수는 올해만 11월 현재까지 1만 8천여 명이 증가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선교센터의 교육과정은 6개월 간 초·중·고급 과정으로 나누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이후 수료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최근 들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말씀' 곧 높은 신학 수준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경기지역 수료생 중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94.6%(1894명)가 교육과정에 만족했으며 그 이유를 '탁월한 성경 말씀'이라고 답했다.

수료생 이명희(32, 가명) 씨는 "그동안 많은 교회를 다니며 성경의 참 뜻을 찾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했고 말씀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었다. 해서 신학대에 진학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성경의 참 뜻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인 신학자들의 확실한 가르침"이라며, "신천지예수교회 선교센터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했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 수많은 거짓 속에서 이곳만이 '참'일 수밖에 없고, 거짓된 곳은 몰락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료생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전 성도 신앙점검' 시험을 진행하며,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천지예수교회 12지파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광주·전남지역의 베드로지파는 현재 출석교인만 3만 명을 넘기며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베드로지파 선교센터 수료생 추이

를 살펴보면 ▲2014년 4295명 ▲2015~2016년 6327명 ▲2017년 2625명 ▲2018년 상반기 3111명으로 5년 사이에 2만여 명에 달하는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도 매달 200~300명 정도가 광주·전남지역 내 35개의 선교센터에서 성경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내년에 있을 수료식을 위해 3천여 명이 대기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은 "성경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만 11월 선교센터 방문자가 1천여 명에 달하고, 12월 방문 예정자는 2천여 명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기존 교단에서 목사들이 성경의 참 뜻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에만 탁월한 진리 말씀이 있고 성경적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전성도가 지켜야할 새 언약 이행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 후 수료생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 사회를 맡고 있는 이재섭 지파장